

# 多富洞戰鬪를 통해 본 聯合作戰의 敎訓

田中 恒夫

(전 방위대학교 교수)

1. 머리 말
2. 한국군 제1사단의 8월 공방전
3. 미 제1기병사단의 9월 공방전
4. 부대 교대의 실상과 문제점
5. 한·미 연합작전과 전투방식
6. 맺 음 말

## 1. 머리 말

한국전쟁은 일본의 방위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전사상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연합작전 측면에서의 교훈이다.<sup>1)</sup> 연합작전은 지금은 각 국가마다 일반적으로 깊이 연구되고 있지만, 실제 작전수행에 있

1) 한국전쟁에서의 연합작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주요 저서로는 佐佐木春隆, 「徒然 '連合作戰' 考」(『陸戰研究』, 1981년 1~4월호); 白善燁, 「韓國戰爭およびその後における韓米の連合」(『陸戰研究』1994년 6~7월호) 등이 있다.

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연합작전에 참가하는 국가마다 전쟁 목적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 각국 군대가 각기 자국군을 보호하려 하거나 명예심을 고양시키려 한다는 점, 그리고 각국의 민족성, 풍속, 습관, 언어, 종교 등의 차이에서 오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외에도 각국 군대의 전략·전술의 차이, 부대편성·장비·훈련 등의 차이, 후방지원 문제, 그리고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지휘관의 자질이나 능력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연합작전에 있어서는 국가와 작전부대의 수준과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국가와 국군, 상급 사령부 등의 문제는 물론 제 일선 부대의 수준까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전쟁 낙동강선 방어작전기의 대표적인 전투인 다부동전투를 통해서 연합작전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부동전투에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1950년 8월과 9월에 각기 투입되어 방어작전을 수행하였다. 필자는 이 전투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수행한 전투 수행방식이 각기 차이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미 제 일선 부대가 수행한 연합작전의 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의해 발발한 한국전쟁에 즈음하여, 미국은 27일에 해군과 공군, 30일에는 지상군의 투입을 각기 결정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월 7일, 국제연합군의 창설을 결의하였고, 다음날인 8일 맥아더(MacArthur) 원수가 국제연합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각국의 국제연합군도 그의 지휘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국인 한국군이었지만, 7월 14일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넣기로 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었다.<sup>2)</sup> 맥아더 원수는 한국 육·해·공군을 각

2) Roy E. Appel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각 제8군, 극동 해군, 극동 공군에 넣어 지휘체통의 통일을 꾀했다. 이것은 그 후 참전한 국제연합 각국의 군대도 같은 방식이었다.

1950년 8월, 국제연합군은 북한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낙동강 방어선(부산 교두보)으로 불리는 한반도의 남단으로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이 때 다부동 지역을 담당한 한국군 제1사단은 3개 사단 이상의 북한군을 상대로 격전을 반복하였으며 마침내 북한군의 소위 ‘8월 공세’를 격퇴했다.

그런데 8월 30일, 한국군 제1사단으로부터 다부동의 방어진지를 인수한 미 제1기병사단은 북한군의 ‘9월 공세’를 받아 다부동 남쪽 8km 지점인 동명(東明) 부근까지 후퇴했던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군 제1사단에 비해 장비도 화력도 월등히 우수한 미 제1기병사단이 후퇴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 제1기병사단의 후퇴와 관련해 전 육군본부 전사감 김이균(金利均) 장군은 「한국전쟁의 특성」이라는 논문에서 “화력도 장비도 빈약한 한국군 제1사단이 20여 일간이나 고수한 진지를 미군은 불과 2일만에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투방식의 문제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sup>3)</sup> 그러면 도대체 ‘전투방식’이란 무엇일까?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제일선 부대로서 연합작전을 수행할 경우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또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의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8월 공방전 시기 한국군 제1사단이 수행한 작전의 특징과 성격은 무엇이며, 미 제1기병사단과의 부대 교대 상황에서 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9월 공방전 시

*Naktong, North to The Yalu, 1950. 7-11, Washington D.C.: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1, pp. 111~1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1979, p. 99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p. 238~240.

3) 김이균, 「한국전쟁의 특성」, 『군사』 제21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p. 188.

기에 미 제1기병사단이 수행한 작전의 특징과 성격을 분석하여 한·미 연합작전상에서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군 제1사단의 8월 공방전

1950년 8월 13일 다부동의 방어진지를 점령한 한국군 제1사단(白善燁 준장은 후에 미 제1기병사단 소속의 제27연대(John Michaelis 중령, 이 전투 직후 대령으로 진급)와 제23연대(Paul Freeman 대령), 그리고 한국군 제10연대(高根弘 중령)를 증원 받아 북한군 3개 사단 이상을 상대로 반격에 반격을 거듭하여 방어선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 전투는 8월 공방전 가운데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투로서 격전의 연속이었다. 사단은 때로 방어진지의 대부분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백선엽 사단장이 직접 돌격하는 상황까지 전개되는 등 문자 그대로 사투의 연속이었다.<sup>4)</sup>

전쟁후 한국에서는 1970~1980까지 공간 전사인 『한국전쟁사』(전 11권)를 발간한 이후, 1981년부터 소부대 지휘관을 위한 교육 참고자료로서 참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국전쟁 기간의 주요 전투사를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발간물이 『다부동전투』였다. 이 저서에서는 다부동전투에 대해 “한국전쟁 중 가장 중요하고 처절하기 이를 데 없는 혈전을 벌인 끝에 이를 격멸함으로써, 이른바 ‘생사기로(生死岐路)’에 직면한 전황을 극복했던 것이다”<sup>5)</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전쟁사에서 다부동전투는

4) 다부동전투에 관한 주요 논저로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19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1981; 佐佐木春隆, 『韓國戰爭 韓國篇』 下卷, 原書房, 1976.; 田中恒夫, 『韓國戰爭・多富洞の戦い-若き將兵たちの血戦』, かや書房, 1998.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p. 31.

중요하고 격렬한 전투였다.

당시 제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준장은 그의 저서 『한국전쟁 일천일(韓國戰爭一千日)』에서 다부동지역의 방어가 성공했던 요인으로 진지선정의 적 절함, 시기적절한 증원, 원활한 연합작전, 북한군 전력의 한계, 국민의 지원, 연속된 반격에 의한 전선의 유지 등을 들었다.<sup>6)</sup> 여기서 말하는 연합작전이란 한국군 제1사단과 증원된 미 제27연대 및 미 제23연대의 연합작전을 의미하지만, 당시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연대 사이에는 지휘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조정과 협동을 통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싸우는 방식이었다. 이는 한국전쟁 기간중 한·미간의 최초의 연합작전이었고, 향후 한·미 연합작전의 시금석이 되었다. 이 연합작전에서 한·미 모두는 자신들의 역할을 숙지하여 전투를 수행함으로써 서로의 신뢰를 돈독히 해 나갔다고 생각한다.<sup>7)</sup>

8월 공방전에서 한국군 제1사단의 전투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사단은 328고지, 518고지, 유학산(遊鶴山) 고지 등을 주진지(主陣地)로 설정하고 이들 고지를 확보하는데 사단의 주력(主力)을 투입하였으며, 만일 이들 고지들이 북한군에 빼앗기면 역습해서 탈환하는 방식으로 전선을 유지하여 북한군을 저지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선엽 사단장이 그의 저서에서 밝힌 요인 외에 매일 수백 명에 달하는 신병의 보충과 주민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산 정상까지의 지속적인 보급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sup>8)</sup> 하지만 무엇보다도 장병들의 임전무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sup>9)</sup>

6) 白善燁, 『韓國戰爭一千日』, ジャパン・ミリタリー・レビュー, 1988, pp. 102~106.

7) 한국군 제1사단, 특히 제11연대와 미 제27연대가 협동하여 싸운 전투로 ‘보울링구장전투 (The battles of the Bowling Alley)’가 유명하다.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pp. 123~125.

9) 田中恒夫, 앞의 책, pp. 396~399. 제1사단 장병의 다부동 사수 결의는 진지 탈환시 백선엽 사단장이 장병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훈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싸워주어 고맙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후퇴할 장소가 없다. 더 후퇴하면 곧 망국이

8월말 국제연합군은 새로운 증원부대의 도착에 의해 전력이 보강됨에 따라, 혼란스러운 전선을 정리하면서 전력에 비해 방어 정면이 넓은 한국군의 담당지역을 축소하기 위해 그 담당지역을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시켰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군 제1사단이 담당하고 있던 다부동지역은 좌측 근방의 미 제1기병사단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 때 한국군 제1사단에게 주어졌던 명령은 육본 작명 제151호(8. 27, 03:00), 제2군단 작명 제22호(8. 28, 18:00), 제2군단 작명 제24호(8. 30, 12:00)였는데, 제1사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0)</sup>

○ 육본작명 제151호

- 미군 제1기병사단은 한국군 제2군단장과 협의하여 1950년 8월 30일 12:00까지 새로 제정된 제1기병사 사단과 한국군간의 전투지경 서쪽에서 현 제2군단 담당지구의 책임을 담당하여 남부, 동남부, 동부로 향하는 적 행동을 지지하려 함.
- 한국군은 담당지구선상의 방어진지를 정리 강화하는 동시에 연합군의 편조와 장래 공세이동에 필요한 작전용 물자를 방호하기 위하여 담당지구에 대한 적의 남진행동을 지지하려 함.
- 제2군단 제1사단은, (가) 제1기병사단과의 현 담당지구 교대 완료후 즉시 신 담당지구로 이동하여 (제2군단장이 지시하는) 2개 연대로써 동 지구를 담당하라. 신 담당지구의 인수는 제6사단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라. (나) 제2군단장이 지명하는 1개 연대를 1950년 8월 30일까지 河陽에 이동시켜 하양 도착과 동시에 육군본부 예비대가 되게 하라. (다) 교대시까지는 현 담당지구에서 교대 후에는 신 담당지구에서 국

다. 우리가 더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미군은 우리를 믿고 싸우는데 우리가 후퇴하다니 무슨 꼴이냐. 대한 남아로서 다시 싸우자.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쫓라.” 또 필자가 당시 제12연대장 박기병 대령을 인터뷰했을 때, 박대령은 이 점에 관해서 “후퇴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후퇴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선엽 사단장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다부동을 포기하면 나라가 멸망한다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싸웠다”라고 증언했다(1988년 9월 3일, 동경).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pp. 830, 834, 836.

부적 반격을 실시하여 거점을 계속 확보하고 적의 공격을 저지하라.

- 제10연대를 제2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한다. 동 연대는 배속 해제와 동시에 차량으로 慈川洞으로 이동하고 도착과 동시에 제8사단에 원대 복귀하라.
- 제2군단 작명 제22호
  - 미 제1기갑사단은 1950. 8. 30, 12:00까지 아 제1사단 정면을 교대 점령하여 적의 남진 및 서남진을 저지함.
  - 군단은 현 제1사단 정면을 1950. 8. 30, 12:00까지 미 제1기갑사단과 교대하는 동시에 그 나머지 정면을 계속 방어, 적의 남진을 저지하며 그 주력을 진전에 포착 격멸하려 함.
  - 제1사단은 1950. 8. 30, 12:00까지 현 진지를 연합군 제1기갑사단과 교대후 대구, 하양, 신령을 거쳐 1950. 8. 31, 19:00까지 현 제7연대, 제5연대, 기갑연대와 교대하여 적의 남진 및 동남진을 저지하며 이를 진전에 포착 섬멸하라.
  - 제11연대는 1950. 8. 30, 23:00까지 하양에 집결 예비대가 되며 육군 본부의 지시를 받으라.
- 제2군단 작명 제24호
  - 제1사단장은 제15연대를 1950. 8. 30. 12:00를 기하여 제6사단에 배속하라.

위의 작전명령에서 보듯 “제1사단은 8월 30일 12:00까지 현 진지를 미 제1기병 사단에 인계하고, 8월 31일 19:00까지 현 제6사단 지역으로 이동하라. 교대시에는 제15연대를 제6사단에 배속하고, 제10연대의 배속을 해제하여 제8사단으로 복귀시켜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군 제1사단은 8월 29일 작전명령 제31호를 발령하여 각 연대에 부대 교대를 명령했다.

그런데 제2군단의 작전명령 제22호에는 별지로 「작명 제22호에 의한 정보 부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1사단 정면의 북한군은 왜관 북방에 제3사단(병력 2,500명, 포 15문, 전차 5량), 다부동 북방에 제13사단(병력 2,500명, 포 10문, 전차 13량)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 사단에는 후

방에서 강제모집한 의용군이 보충되어 계속 남진을 기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1)</sup>

○ 제2군단 작명 제22호에 의한 정보 부록

一. 적정

- (1) 若木지구 沙旨洞 201.2고지 346고지 수암산 일대  
포병 2개 연대(제3사단)                      병력 2,500  
포병 1개 연대(제3사단 포병연대)        포 15, 전차 5
- (2) 多富洞지구(新長洞, 其谷洞, 新店, 雅洞 일대)  
포병 2개 연대(제13사단)                    병력 2,500  
포병 1개 연대(제13사단 포병연대)        포 10, 전차 13

二. 적의 전투경력 및 기도

- (2) 다부동 방향의 적 제13사단은 8월 7일 낙동강을 도하하여 다부동, 해평동, 유학산 등의 전투에서 전멸상태에 빠졌으며 일부 보충하여 현재 신주막 동측고지 일대와 共谷洞 일대에 배치되었으며 대구를 점령할 목적으로 계속 남침을 기도중임.
- (8) 적 제3사단 및 제13사단은 아군의 좌익을 견제하여 적 제1사단, 제8사단, 제14사단으로서 신령 방향으로 주공을 할 것이며, 적 제15사단은 아군의 우익을 우회 조공할 것이 농후함.
- (9) 병력, 장비, 전투능력, 사기, 보급 : 아 군단정면에 출현한 적의 각 사단은 수시로 후방으로부터 강제모집한 의용군(훈련되지 않은 신병)으로서 정규편성 병력의 평균 3분의 2 정도의 병력은 항상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며 장비의 보충은 전혀 없을 것임.

이 무렵 각 연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왼쪽 제일선의 제15연대(崔永禧 대령)<sup>12)</sup>는 제2대대를 제11연대에 배속하여, 2개 대대를 기반(基

11) 위의 책, p. 835.

12) 제15연대는 7월 5일 제13연대와 합병하여 건제상(建制上) 제13연대로 호칭되었지만, 사단의 장병들 사이에서는 제15연대라고 호칭되었고, 사단의 작전명령에서도 제15연대로

幹)으로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연대는 2주간에 걸친 격렬한 쟁탈전 끝에 328고지, 260고지를 사수하고, 8월 30일 13:00에 동(同) 진지를 미 제5기병연대에 인계한 후 제6사단으로 배속이 되어 대구로 향해 이동을 개시하였다.<sup>13)</sup>

중간 제일선의 제12연대(朴基丙 대령<sup>14)</sup>)는 8월 23일에 유학산(遊鶴山)을 탈환하고 동 고지 북측 경사면의 적을 소탕하였다.<sup>15)</sup> 하지만 수암산(水岩山)을 공격했던 제2대대는 산정의 두개 봉우리 중 동쪽 봉우리(표고 513m)를 탈취했지만, 40m 떨어진 서쪽 봉우리(표고 518m)는 탈취하지 못하고 북한군과 대치중이었다.<sup>16)</sup> 연대는 8월 30일 13:00에 이 지역을 미 제7기병연대에 인계한 후 대구, 하양을 거쳐 같은 날 17:00 신령(新寧)에 도착했다.<sup>17)</sup>

오른쪽 제일선의 제11연대(金東斌 대령)는 증원된 미 제27연대와 함께 ‘보울링구장전투(The battles of the Bowling Alley)’<sup>18)</sup>로 불리는 격렬한 전투를 거듭한 끝에 북한군 제13사단을 격퇴했다. 그 후 미 제27연대는 25

기록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15연대로 기록했다.

- 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p. 1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 전투』, p. 142. 제15연대와 관련해 『한국전쟁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15연대는 2개 대대의 병력으로써 북한군 제3사단과 328고지에서 총 9차례 걸친 공방전을 전개하여 피아간에 많은 손실을 보았으나, 끝내 이 진지를 고수한 다음 8월 30일 육본 작명 제151호 및 2군단 작명 제22호에 의거하여 13:00에 현 진지를 미 제1기병사단에 인계한 다음 대구로 이동하였다.”
- 14) 제12연대는 부연대장 김점곤 중령이 전반적인 지휘를 맡았고, 연대장 박기병 대령이 제일선을 지도했다.
-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pp. 189~190, 196~198.
- 16) 위의 책, pp. 212~213. 수암산 정상은 폭 40m, 높이 25m의 벼랑을 사이에 두고 서편에는 표고 518m의 봉우리가 있으며, 그 동쪽에는 약 513m 높이의 산봉이 있다.
-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p. 168.
- 18) Bowling Alley란 다부동 북측 천평동~진목동 간 약 4km의 도로로, 도로의 양측에는 불령의 편과 같이 가로수가 줄서 있으며, 그 움푹한 곳의 좁은 길 중간에서 1950년 8월 중 하순에 매일 밤 격전이 일어나 포탄이 불령과 같이 난비(亂飛)해 작렬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일 저녁부터 26일 아침 사이에 원대로 복귀하였으며,<sup>19)</sup> 8월 19일 이래 증원되어 다부동 남쪽 4km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미 제23연대도 증원이 해제된 28일에 후방으로 퇴각하였다.<sup>20)</sup> 또한 제11연대는 우측 근방의 한국군 제6사단이 위기를 맞자 27일 연대에 배속중인 제15연대 제2대대를 파견하였다.<sup>21)</sup> 그리고 연대는 8월 28일 신주막(新酒幕) 북측까지 진출하여 잔적을 소탕하고,<sup>22)</sup> 8월 30일 새벽부터 13:00 사이에 미 제8기병연대에 담당 지역을 인계하고 신령의 신진지로 향했다.<sup>23)</sup>

8월 19일부터 제1사단에 배속되어 있던 제10연대(고근홍 중령)는 연대 주력으로 가산 일대의 북한군을 공격하고, 8월 27일에는 북한군 제1사단 제14연대를 격멸하였다.<sup>24)</sup> 이 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은 제1대대는 8월 29일 미 제8기병연대에 진지를 인계한 후 대구로 이동하였으며, 연대 주력은 다음날 30일 미 제8기병연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원대인 제8사단으로 복귀하였다.<sup>25)</sup>

이렇게 보면 한국군 제1사단의 진지 인계는 교대 완료시기가 명령보다 1시간 늦는 등 약간의 혼란스러운 면도 보이고, 실제 교대에 당면해서는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리도 없다. 예를 들면, 당시 제15연대 제1대대의 작전참모였던 이종정(李鍾鼎) 중위는 “미군과의 교대시, 미군은 전장 청소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진지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때마침 적이 공격을 개시해 고지를 점령하자 미군은 우리보고 빼앗아 주어야 진지를 인수하겠다고 옥신각신하였다. 결국 우리가 공격해서 탈환한 다음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p. 219.

20) 위의 책, pp. 165~166.

21) 위의 책, p. 265.

22) 위의 책, p. 265. 또한 『한국전쟁사』에서는 제11연대가 8월 25일에 미 제27연대의 전방으로 진출하여 신주막 능선을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p. 186).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p. 187.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pp. 282~284.

25) 위의 책, pp. 284~285.

진지를 인계하고 이동하였다”<sup>26)</sup>라고 증언하고 있어 꽤 혼란스러운 장면도 있었음이 엿보인다.

그렇지만 한국군 제1사단은 8월 30일 부대 교대시 당초의 군단 명령에 의해 Y선(328고지~수암산 동쪽 봉우리~유학산~신주막)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러한 진지를 미 제1기병사단에 인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1사단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미 제1기병사단의 우측에 연결된 신령, 팔공산의 신진지를 점령했다.<sup>27)</sup>

### 3. 미 제1기병사단의 9월 공방전

한국군 제1사단으로부터 대부분의 방어진지를 인계 받은 미 제1기병사단(Hobert Gay 소장)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한국군 제1사단의 좌측 왜관(倭館)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미 제1기병사단은 편제상으로는 3개 연대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실제로 각 연대의 제3대대는 결여되어 있었다. 8월 하순, 미 본국으로부터 새로운 증원부대가 도착하여 8월 26일 사단에 3개 대대가 편입됨에 따라 각 연대에 1개 대대씩 충당되어 완편사단이 되었다. 또 이 때 사단에는 3개 포병중대가 증강되었고, 9월 1일에는 영국군 제27여단이 배속됨에 따라<sup>28)</sup> 사단의 전력은 8월에 비해 약 2배 증강되었다.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제15연대 제1대대 작전장교 이종석 중위의 증언』, 『한국전쟁사』 제3권, p. 160 재인용.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p. 287. 제1사단은 1950년 8월 31일~9월 2일 간에 제6사단의 좌일선 방어진지를 인수(제2군단 작전명령 제26호: 1950.8.31)했는데 예하부대의 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단전투지휘소: 신단동, 제11연대: 사단 좌일선(기갑연대 및 제5연대의 방어진지를 인수), 제12연대: 사단 우일선(제7연대의 방어진지를 인수), 제15연대: 제6사단에 배속(제19연대를 증원).

28) Roy E. Appleman, *op. cit.*, p. 390.

한국군 제1사단과의 부대 교대에 관해서는 미 공간사와 『제1기병사단사(1st Cavalry Division)』에서 다소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미 공간사에서는 “미 제8군의 명령에 따라, 8월 28일 케이 장군은 제7기병연대에게 한국군 제1사단의 좌측을 담당하게 하고, 제8기병연대에게 우측을 담당하게 했다. …… 8월 29일, 제7기병연대는 순차적으로 한국군 제15연대 및 제12연대의 일부와 교대했다. 새롭게 도착한 제5기병연대의 제3대대는 8월 30일부터 원래 제8기병연대가 담당하던 지역을 담당하고, 그 후 제8기병연대는 한국군 제11연대 및 제12연대 지역으로 이동했다”<sup>29)</sup>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소 복잡한 부대 교대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기병사단사』에 의하면, “사단은 8월 29일에 배비가 변경되었고, 좌측의 제5기병연대는 담당지역 정면이 증대되어 담당지역이 총 3만 2천 야드가 되었다. 제7기병연대는 중앙부를 차지하고, 제8기병연대는 대구 북방의 보울링구장(Bowling Alley) 지역으로 이동했다. …… 사단의 일부는 표고 3천 피트 정도의 고지(가산)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송문제의 어려움이 증대되었다”<sup>30)</sup>라고 기술되어 있다.

쌍방의 서술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지만, 한국측의 서술과 아울러 판단하면 실제 부대 교대는 『제1기병사단사』의 서술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간략하게 부대 교대의 요령을 살펴보면, 미 제5기병연대가 한국군 제15연대 지역까지 아울러 담당하고, 미 제7기병연대가 한국군 제12연대 지역을, 미 제8기병연대가 한국군 제15연대 지역을 담당하였다. 또 허술한 사단의 좌측에는 배속된 영국군 제27여단을 배치했다. 어쨌든 한국군보다 우수한 장비를 갖춘 미 제1기병사단이 한국군 제1사단이 담당하고 있던 지역을

29) *Ibid.*, pp. 390~391.

30) Farner, F., ed. *The First Team: The First Cavalry Division in Korea, 1950. 7. 18 ~1952. 1. 18*, Atlanta: Albert Love Enterprises, 1952. 幹部學校 譯, 『韓國戰爭における米第1騎兵師團』(이하 『第1騎兵師團史』), 1961, p. 14.

담당하게 된 것은 그렇게 곤란한 임무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미 공간사에는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의 부대 교대가 “8월 30일 오후 1시에 완료됐다”고 명기되어 있다.<sup>31)</sup>

미 제1기병사단이 다부동의 신진지를 점령한 직후, 북한군은 이른바 9월 공세로 불리는 낙동강 방어진지로의 최후공세를 개시했다. 왜관 남측에서 마산 사이에 배치되어 있던 제1군단은 8월 31일 밤 공격을 개시하였고, 왜관에서 포항 사이에 배치되어 있던 제2군단은 9월 2일 밤 공격을 개시하였다.<sup>32)</sup> 이에 따라 미 제1기병사단은 신진지를 점령한 다음날에 좌측의 부대가, 그리고 3일째에 우측의 부대가 북한군의 공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8월 31일 밤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미 제8군은 영산 정면으로부터 적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제1기병사단에게 다부동~상주(尙州) 축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제1기병사단은 정면에 있는 북한군의 기선을 제압하고 주요지점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우선 518고지(수암산)와 346고지 서방의 고지군을 제압하였다.<sup>33)</sup>

31) Roy E. Appleman, *op. cit.*, p. 391.

32) 북한군의 9월 공세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공간서 내용이 다소 차이가 난다. 북한 공간사에서는 ‘서부 타격집단은 8월 31일 밤’, ‘북부 타격집단은 9월 1일’이라고 하고 있다(『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평양·외국문장출판사, 1961, pp. 97~98). 그러나 남한의 공간사인 『다부동전투』에서는 ‘북한군 제1군단이 8월 31일 23:30, 북한군 제2군단이 9월 2일 18:00’라고 명기하고 있으며(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p. 290), 당시 육군참모총장도 ‘서부 정면은 8월 31일 23:30’, ‘북부 정면은 9월 2일 18:00’라고 회고한다(丁一權, 『原爆か休戦か』, 日本工業新聞社, 1989, pp. 109 ~111). 참고로 북한군 9월 공세의 공격계획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군단(왜관 남측-마산): 제1공격집단(제6사단, 제7사단, 제105전차사단, 제6기갑여단, 제104보안여단)은 마산 정면을 돌파하여 김해 경유 부산으로 진출, 제2공격집단(제2사단, 제4사단, 제9사단, 제10사단)은 낙동강 돌출부를 돌파하여 창녕-영산-밀양으로 진출 후 대구-부산 도로를 차단. 제2군단(왜관-포항): 제3공격집단(제1사단, 제3사단, 제13사단, 제17기갑여단)은 다부동-효령 정면을 돌파하여 대구를 점령, 제4공격집단(제8사단, 제15사단)은 조림산-보현산 정면을 돌파하여 영천-하양을 점령한 다음 대구 혹은 경주로 진출, 제5공격집단(제5사단, 제12사단)은 안강-포항 정면을 돌파하여 포항-영일비행장을 점령함과 동시에 경주 경유 부산으로 진출(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같은 책, pp. 290~291).

9월 2일 오전 10시, 제7기병연대는 518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이것은 포병의 지원과 네이팜탄을 보유한 공군의 지원을 받은 본격적인 공격이었다.<sup>34)</sup> 미 공군의 치열한 폭격과 포병사격에도 불구하고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으로 대항하는 북한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제7기병연대의 수암산 공격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sup>35)</sup> 그리고 같은 날 밤, 북한군 제2군단의 총공격이 시작되어 제1기병사단의 공격은 북한군의 공격과 정면에서 서로 부딪치게 되었다.

우측의 제8기병연대는 제1대대를 다부동 북방의 산등성이에, 또 제2대대를 신주막의 도로 서측에 배치하고, 제3대대의 2개 중대를 이끌고 견제 공격을 가하여 제7기병연대의 공격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이 때문에 연대의 예비대는 1개 중대만 남게 되었고, 가산(架山)에는 연대의 정찰소대와 한국 경찰대만이 배치되어 있었을 뿐이었다.<sup>36)</sup> 북한군 제1사단은 9월 2일 밤, 448고지상의 제2대대를 격파해 동 고지를 점령하고, 9월 3일에는 정찰소대와 한국 경찰대가 확보하고 있던 가산성지(架山城址, 902고지)를 급습해 점령한 후 다부동으로 진출하였다.<sup>37)</sup>

그 사이에 좌측의 제5기병연대는 제2대대가 303고지를 점령하고 있었지

33) Roy E. Appleman, *op. cit.*, p. 411; 『제1기병사단사』, p. 16. 9월 1일 워커 장군은 미 제1기갑사단장에게 미 제2사단과 미 제25사단 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적의 압박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서북방면으로의 공격을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게이 장군은 최초 상주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공격을 시도한다는 계획을 가졌다. 그러나 참모와 연대장들이 모두 이 공격 계획을 반대하고 518고지에 대한 공격을 건의함으로써, 결국 미 제1기갑사단은 518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에 집중하게 되었다.

34) 제7기병연대의 공격에 앞서 전폭기대가 수암산과 346고지에 대하여 37분간 폭탄과 네이팜탄을 집중투하 하였고, 이어서 32문의 포문이 일시에 공격준비 사격을 가한 다음 제7기병연대의 제1대대가 직접 수암산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때 제2대대는 서쪽에서 엄호진지를 미리 점령하였고, 제3대대는 제2대대의 뒤쪽에서 수암산과의 공간지대에 배치되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p. 471).

35) Roy E. Appleman, *op. cit.*, pp. 413-414.

36) *Ibid.*, p. 421.

37) *Ibid.*, p. 421.

만 동 대대는 9월 2일 밤, 북한군에 의해 격퇴되었고, 넓게 전개되어 있던 연대는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후퇴했다.<sup>38)</sup> 또 제7기병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암산, 346고지의 탈취에 전력을 기울였지만, 동 고지군을 점령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북한군은 518고지와 328고지 사이에서 연대의 후방에 침투하여 9월 4일에는 464고지를 점령해 버렸다.<sup>39)</sup>

이와 같이 기병사단의 방어는 도처에서 파탄을 초래하고 있었다. 사단은 적극적으로 반격했지만, 겨우 9월 4일에 제5기병연대의 제2대대가 303고지를 탈환할 수 있었을 뿐 전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ker) 중장은 콜리어(Collier) 대령과 철수계획을 논의한 다음, 제1기병사단장에게 야음을 이용해 후방의 방어진지로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게이 사단장은 9월 5일 밤 제8기갑연대, 제7기갑연대, 제5기갑연대 순으로 총 퇴각할 것을 명령하였던 것이다.<sup>40)</sup>

#### 4. 부대 교대의 실상과 문제점

미 제1기병사단의 후퇴는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 김이균씨가 말하듯이 “화력과 장비가 빈약한 한국군 제1사단이 20여일간 고수했던 진지를 미군은 단 2일만에 적 수중에 넘겨주고 말았다.”<sup>41)</sup> 이는 정예를 자랑하던 미 제1기병사단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38) 『제1기병사단사』, p. 19.

39) Roy E. Appleman, *op. cit.*, p. 414.

40) *Ibid.*, p. 415. 미 제8군사령관은 9월 4일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하여 테이비드선으로 철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다음날 아침 이를 보류하고 대구를 사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미 제8군사령부와 육군본부는 9월 5일 부산으로 이동하고 대구에는 미 제8군 전방지휘소가 설치되었다.

41) 김이균, 앞의 논문, p. 188.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북한군의 8월 공세와 9월 공세는 공격의 양상도 달랐고,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편성과 장비가 달랐다. 또 미 제1기병사단은 전력이 증강되었다고 해도 방어 정면이 넓어졌고, 게다가 한국군과 같이 신병의 보충도, 노무자의 지원도 받기 어려웠다는 불리함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미 제1기병사단이 점령한 신진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미 제1기병사단은 한국군 제1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진지를 그대로 인계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 제1기병사단의 신진지 중에서 명확하게 기술되고 있는 것은 303고지, 448고지, 가산(902고지) 등 3개소이고, 518고지에 대해서는 공격 목표로 기술되어 있다. 그 외의 328고지나 유학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표현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미 제1기병사단이 명확하게 점령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448고지의 경우는 한국군 제1사단이 미 제1기병사단과 교대시에 점령하고 있었던 신주막 북측 고지의 2km 후방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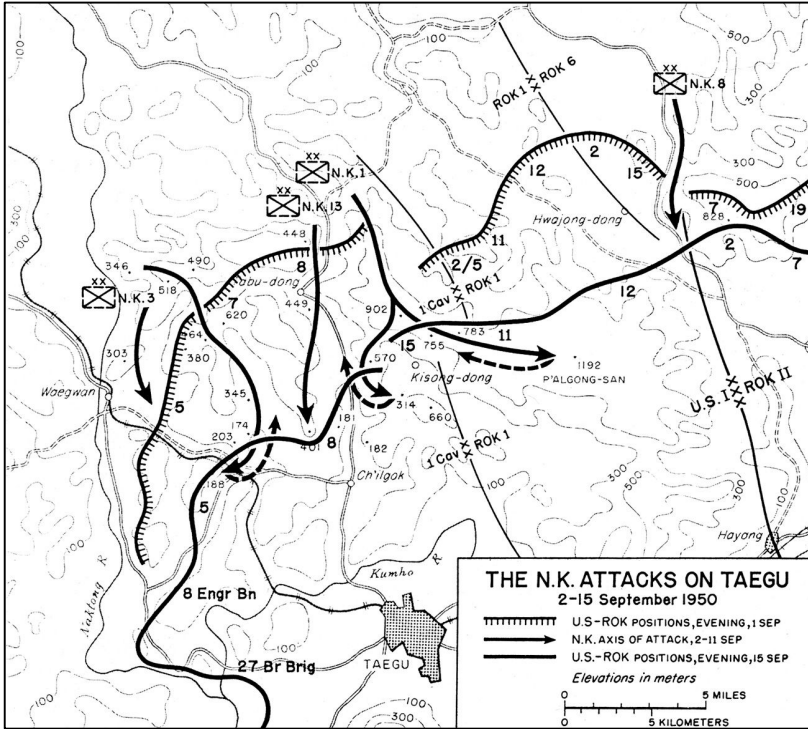
한편 미 공간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즉 “게이 사단장은 지구 내 적의 주접근로에 전초(前哨)를 배치하고, 전초 후방에 3개 연대를 집결시켰다.”<sup>42)</sup> 그러나 이 때 설치된 전초의 위치와 후방에 집결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부대 주력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마치 한국군 제1사단이 총력을 다해 확보한 제일선 진지에 미 제1기병사단이 거의 배비되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표현이다.

게다가 미 공간사에는 ‘북한군의 대구 공격(THE N.K. ATTACKS ON TAEGU)’이라는 항목에 부도가 게재되어 있는데,<sup>43)</sup> 9월 1일 저녁의 전선은 464고지~유학산~448고지 남쪽을 따라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이전에 한국군 제1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선보다 수 km 후방의 선이다. 9월 1일 저녁이라고 하면 신진지 점령 후 2일째이고, 아직도 북한군 제2군단의 공세가

42) Roy E. Appleman, *op. cit.*, p. 411.

43) *Ibid.*, p. 412.

<상황도> 1950년 9월 2일~15일 북한군의 대구 공격



개시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 제1기병사단은 한국군 제1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진지를 그대로 점령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은 더욱 강해진다.

그런데 당시 한국군 제1사단 내 제 일선의 제12연대장으로서 유학산 일대의 제일선 부대를 지휘했던 박기병 대령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군과의 교대를 명령받았지만, 명령받은 교대시간이 지나도 미군은 오지 않았다. 사단장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동할

상황도 아니어서 일부 부대를 팔공산의 신진지로 이동시키고, 부대 주력과 함께 산 위에서 초조하게 미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부대 교대 때에는 새로운 부대가 진지에 진입한 후 지휘관끼리 현지에서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미군이 왔지만 산정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다. 미군 지휘관은 뚱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정까지 오르는 것이 큰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쩔 수 없이 산을 내려와 산기슭에서 서명을 끝내고 즉시 신진지로 향했다. 따라서 미군이 수암산이나 유학산을 그대로 점령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당시 산정 부근에는 시체가 흩어져 있었고 더위로 악취가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머무를 수 없었으므로 .....<sup>44)</sup>

이것들을 종합하면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의 부대 교대에 즈음하여 미 제1기병사단은 한국군 제1사단이 점령하고 있었던 산 위의 진지를 그대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산 위에 배치하고 주력은 산의 후방 기슭에 배치하거나, 혹은 모든 부대를 후방 기슭에 배치했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이 기병사단과 교대하여 산을 내려오면 북한군은 다시 고지를 점령했다. 이윽고 기병사단이 고지를 공격했지만 북한군의 격렬한 반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9월의 전황은 잘 이해할 수 있다.

## 5. 한미 연합작전과 전투방식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의 부대 교대는 부대 교대 자체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포함하고 있음과 동시에,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 사이의 전투에 대한 가치관, 전투방식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44) 당시 제12연대장 박기병 대령의 증언, 1988. 9. 3, 동경.

지상전에서는 임무 및 피아의 상황 그리고 지형에 따라 그 특징이 있지만, 예로 든 이러한 요소가 같다고 해도 그것들에 관한 인식이 다르면 전투에 대한 가치관은 자연히 달라진다. 따라서 완전히 같은 전투라는 것은 없다.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편성과 장비는 크게 다르지만 기본적인 임무는 거의 동일하며,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대체로 동일한 정도의 적과 싸우고 있었다. 그렇지만 적에 대한 가치관, 지형에 관한 견해는 크게 차이가 났다고 생각한다. 한국군은 열세한 편성과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북한군에 대해서도 같은 민족이라는 면을 고려하여 그들의 사고방식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었다. 북한군은 도로가에서도 공격해 오고 산지 옆에서도 공격해 온다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도로뿐만 아니라 산지에도 부대를 배치하여 산정이나 능선을 확보하기에 사력을 다했던 것이다.

한편 미 제1기병사단은 한 번 격퇴된 북한군이 유학산이나 가산의 산지 옆에서 공격해 온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비록 공격해 온다고 해도 전차도 운행할 수 없는 산악지에서 보병이 침투해 오는 것 등은 우세한 포병 화력, 항공 공격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미군은 이동이 불편하고 보급도 어려운 산상에 진지를 점령할 필요가 없이 산상에는 일부 부대를 배치하고 주력은 그 후방에서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미군의 합리적 판단의 기초가 된 것은 미군의 인명 존중이라는 사고, 그리고 그것의 효과와 손실의 밸런스인 듯하다. 군대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으려고 한다. 특히 미군은 손실의 발생에 민감하다. 따라서 미 제1기병사단에게는 제일선이 수 km 후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미군의 인명 존중에 관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싶다. 다부동 전투 때 미 제8군은 한국군 제1사단의 제11연대에 고문관으로 해리스(Harris) 대위를 파견하였다. 필자는 해리스 대위의 통역으로 동행했던 김진일(金振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의 인터뷰에 의하면, 다부동전투 중 연대의 제 일선 대대장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화를 걸어 후퇴 승인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다. 그 때 김동빈 연대장은 그 대대의 후퇴를 허락하지 않고, “결단코 사수하라!”고 명령했다. 그 때 옆에 있던 해리스 대위가 “오히려 여기에서 죽게 하는 것이다. 후퇴시켜야 한다”라고 반대하고, “한 사람의 병사를 양성하는데 2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평상시 조용하던 해리스 대위가 김동빈 연대장에게 반론을 제기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군이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sup>45)</sup>

즉 미군은 사람의 목숨을 매우 소중히 여겼으며, 그것이 미군 사기의 근원이었다. 또한 잃어버린 진지는 되찾으면 되지만 한 명의 병사를 양성하려면 20년이 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화력이 뒤떨어지는 한국군으로서는 낙동강선까지 궁지에 몰려 있던 상황에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으므로 많은 병사들을 투입해서라도 진지를 사수해야만 했다. 그것은 비장한 결의였으며, 그에 따라 전선을 유지하고 북한군을 계속 저지해야만 했다.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군이 수행한 전투 중에는 1950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수십 배에 달하는 중공군의 겹포위를 뚫고서 125km의 험난한 길을 따라 후퇴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전투나, 1951년 2월 공산군의 2월 공세 때 불과 1개 연대로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한 미 제23연대의 지평리전투 등과 같이 경탄할 만한 전투도 많았지만, 적어도 1950년 여름에는 기병사단이 아직 한반도의 전장터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예가 존재한다.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 제1기병사단의 전력(戰歷)이다. 미 제1기병사단은 7월 18일에 한국에 도착하여 8월 3일부터 왜관지구 방어에 들어갔다. 사단은 8월 9일에 제5기병연대 지구에서 돌파당한 금무봉(錦舞峰)

45) 당시 한국 제11연대 통역장교 김진일씨의 증언, 1999. 5. 16, 동경.

을 점령하고, 13일에는 제7기병연대 지구에서, 그리고 15일에는 다시 제5기병연대 지구에서 진지를 돌파하였다. 곳곳에서 예비대를 투입한 북한군을 격퇴한 경험이 있었다.<sup>46)</sup> 따라서 다부동의 신진지로 이동한 후에도 이와 같이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 북한군은 유학산이나 가산 등의 산지에서 대거 공격해 왔다. 그것은 사단의 예상을 넘어선 규모였으며, 그 맹공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미 제1기병사단이 한국군 제1사단과 동일한 산상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면 싸움은 다른 양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점이 김이균 씨가 말한 ‘싸움의 방식’의 차이일 것이다.

이처럼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정도의 적과 싸우는 경우에도 전투의 방식이라는 것은 달라진다.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의 경우는 부대 교대 전후에서의 차이지만, 전투지경선을 접해 싸우는 경우에는 이 전투방식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된다. 실제로 8월에 다부동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에게 인계한 후, 그 동쪽에서 인접해 싸웠던 한국군 제1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의 후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 km 후퇴를 해야 했다.<sup>47)</sup>

한국전쟁 중 참전 각국의 전투방식의 차이가 전투에 영향을 미쳤던 예는 많이 보인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국제연합군이 재반격한 1951년 1월 ‘썬더볼트작전(Thunderbolt Operation)’ 때, 경부국도변으로 진격한 미 제25사단은, 미 제35연대에 배속된 터키(Turkey)여단을 이끌고 수원 북서쪽의 수리산을 공격했다. 2월 2일 수리산에서 이어지는 두 개의 능선 가에서 우측의 E중대가 수리산을, 좌측의 터키군이 서방의 440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했다. E중대는 중공군의 진지를 1개씩 격파하여 진격하였고, 터키군은 단번에 목표로 진격하여 이윽고 각각 목표를 탈취했다. 그 사이에 중공군의 저항은 거의 없었다.

46) 『제1기병사단사』, pp. 1~14.

47) 한국군 제1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이 후퇴하자 주저항선의 연결을 위하여 1950년 9월 6일 583고지-팔공산 북쪽 기슭-317고지 선으로 철수(제2군단 작전명령 제31호)하였다 (『다부동전투』, p. 294).

그런데 중공군은 터키군이 점령한 440고지의 지하에 잠복하고 있다가 저녁때 지하에서 나와 터키군을 공격하여 격퇴한 후, E중대에게도 공격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E중대는 곤경에 빠져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수리산정은 계속 확보하고 있었다. 터키군은 다음날부터 반격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사단은 5일 미 제27연대 제3대대를 투입해 간신히 440고지를 탈환했다. 터키군이 격퇴된 원인은 440고지를 점령했을 때 수색과 부대 배치라는 목표 탈취시에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국의 군대에 따라 그 싸우는 방법이 달랐던 예는 한국전쟁에서도 많이 보이며, 연합작전에서는 발생하기 쉬운 일이었다.

## 6. 맺 음 말

다부동전투에서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의 전투수행 방식의 차이는 하나의 특수한 사례일지도 모른다. 한국전쟁 중 미군이 산악지대에서 전투를 수행한 예는 얼마든지 있으며 또 한국군이 평지에서 전투한 예도 많이 보인다. 또한 한국전쟁 기간 한·미 연합작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초기단계나 전황이 악화된 경우 그러한 문제가 부각되었음은 사실이다.

당시 한국군은 미군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고 또 실전경험 면에서도 미군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의 전투수행 방식에 대해서 거의 비판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다부동전투』에는 단 한 곳에서 미군의 전투수행 방식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즉, 그것은 미 제1기병사단이, 9월 2일 야간부터 제7기병연대의 방어진역에서 북한군의 침투공격을 받아 후방의 464고지를 점령당한 부분에 관한 것이다. 『다부동전투』에서는 “지난 1950년 8월 13일

부터 17일간 한국군 제15연대가 피투성이가 되어 328고지를 사수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한데 화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미군의 작전개념으로는 그러한 혈전을 전개할 수 없었던 것 같았다”<sup>48)</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보면 한국군에게는 미군이 ‘화력을 과신한다’고 비쳐졌을 것이다.

한편 미군은 한국군의 전투방법에 대해서 화력이 약하고 전투능력이 낮다고 평가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전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당시의 한국군 1개 사단은 화력이나 기동력 면에서 미군의 1개 연대 정도의 전투력밖에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각급 지휘관에 대해서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미군의 지휘관에 비해 지휘능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군의 지휘관들은 모두 젊고, 싸우면서 지휘능력을 갖춰 나갔다고 생각한다.

또 한국군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완강하게 싸우는 면과 지극히 느슨하게 비취지는 면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제1사단 등은 완강하게 싸운 부대였지만, 어떤 부대의 경우에는 전투중에 후방의 시냇물에서 식기를 씻거나 수영하는 병사도 있었고, 또 어떤 부대에서는 여러 명의 지휘관이 거리에 나와 연회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이 미군에게는 느슨함으로 비취진 듯하다. 어떤 나라에게는 여유로운 행위로 비취지는 것이 어떤 나라에게는 부적절한 행위로 비취지는 경우도 있어, 평시에는 허용할 수 있어도 생사를 건 싸움터에서는 비록 아군이더라도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연합작전에서 참전 각국의 전투방식의 차이와 그것에 의해 발생하는 아군에 대한 평가는 다소간의 오해를 만들어 작전수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부대와 전투지경선을 접해 싸우는 경우 혹은 협동하여 싸우는 경우에는 부대의 사활문제가 되어 때로는 작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p. 292.

즉 연합작전에서는 국가 레벨이나 상급 사령부의 레벨뿐만 아니라, 제일 선의 전투부대 또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가 상존한다. 따라서 나라나 민족에 따라 풍속, 습관, 언어는 말할 것도 없이 사상과 정신도 달라서 군사사상이나 전투요령 또는 지형의 인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인식은 도와주는 쪽보다 도움을 받는 쪽에게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돌이켜 보면, 8월의 다부동전투에서 미 제1기병사단과 경계를 접해 싸운 한국군 제1사단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미 제1기병사단은 왜관 북측의 요충지인 303고지의 확보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한국군 제1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의 303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북측의 328고지를 사수하였다. 게다가 328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측의 518고지를 확보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 제27연대는 보울링구장(Bowling Alley)에 있는 산상을 한국군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골짜기 하단부를 사수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기간중 한·미 연합작전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식한 다음, 상대의 약점을 보완하고 우월한 면을 발휘하도록 노력한 부대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대는 고전을 면치 못해 경우에 따라서는 와해되고 지휘관이 경질되는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의 군대와 함께 싸운다는 인식, 즉 한 팀이라는 의식일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배울 점이 많다.

(원고투고일 : 2004. 10. 12, 심사완료일 : 2004. 11. 10)

주제어 : 다부동전투, 연합작전, 한국군 제1사단, 미 제1기병사단, 전투방식

<ABSTRACT>

## A Study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Combined Operations in the Battle of *Dabudong*(多富洞)

Tanaka Tuneo

In the Battle of *Dabudong*(多富洞) in August, 1950 on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the ROK 1st Infantry Division repulses the vigorous attack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which reaches also in twenty days, and holds the area against them. The US 1st Cavalry Division (CD), which succeeded the position from the ROK 1st Infantry Division (ID) at the end of August, were deprived of the position in several days and had to re-treat also several kilometers.

In spite of having held military power more superior to the ROK 1st ID, why did the US 1st CD retreat?

When carrying out a unit shift, the US 1st CD did not occupied all areas, the position around the summit of the mountain which the ROK 1st ID occupied. That is, the ROK Army Division arranged a part of Army Division around the summit of the mountain and the division's main forces were concentrated on that afterwards. Therefore, the NKPA took the position around the summit of the mountain. We can considered that the US Army Division was in the state of situation disadvantage and the attack of the NKPA was received, and it collapsed in September.

The ROK 1st ID and the US 1st CD had a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enemy troops, friendly troops and geographical feature. It is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of a way based on them to fight.

The Combined Operations has various problems even not only with a national level or an upper headquarters level but from a front unit to individual thought. That is, customs, a custom, a language, thought, and religion also change with a country or race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re are recognition of the geographical feature in the battle of military thought, the battle point, and land and a difference.

These differences may keep as demerit image to friendly troops and may have a bad influence on execution of strategy. We have to understand these differences, and must be conscious of it being the team fought as friendly troops.

Key Words: Battle of *Dabudong*, Combined Operations, ROK 1st Infantry Division, US 1st Cavalry Division, Way of Battle

K C I